



부천문화재단
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2015-3호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만들기

공유성복원탁회의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이 원 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공유성복원탁회의 공동위원장)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만들기

공유성복원탁회의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이 원 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공유성복원탁회의 공동위원장)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0.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버넌스’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의 ‘거버넌스’
-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제안 배경
-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 공유성복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 공유성복원탁회의 “최소한의 내규”
- 공유성복원탁회의 활동현황
- 공유성복원탁회의 향후 활동 계획 및 과제들

저자 소개

이 원 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공유성복원탁회의 공동위원장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만들기 : 공유성복원탁회의

1. '거버넌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국가를, 도시를, 권력을, 재원을 함께 기획하고 나누고 사용하여 조율하는 것
- 최근 도시정책을 둘러싸고 유행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협동, 공유, 생태계, 커뮤니티 등의 개념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1년에 두세 번 회의 개최하는 것, 그 회의 공간에 명패와 의자 놓아 두는 것, 회의에 오자마자 계좌번호 쓰고 사인하게 하는 것, 한 마디씩 돌아가며 덕담하는 것”이 아님
-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권력의 본질에 시민들의 삶이, 다양한 주체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도달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도시운영은 거버넌스가 행정을 돕는 것, 행정의 필요로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자체가 (본래 또는 진행형의) 거버넌스이며, 거버넌스를 위해 행정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존재”라는 출발점을 이해해야 가능함

2.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의 ‘거버넌스’

- 어느새 거버넌스는 가장 현실적인 도시운영의 원리로 호출되고 있음
- 현대 사회에서 도시 정부들은 도시 인구의 팽창과 복지 제도의 확대 그리고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더는 공공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재정도, 인력도,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
-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 운영이 고도화될수록 도시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비약적으로 증대됐으며, 그 결과 도시 정부의 재정 부족(수요 대비)과 무기력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
- 이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서의 시민, 시민권, 거버넌스를 외치는 시대를 가로질러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새로운 주체이자 시스템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하는 도시들은 빠르게 쇠퇴해 갈 것
- 도시 정부의 공급형 정책이 아니라 시민 주체들의 자율적 도시 운영, 창조적인 거버넌스가 없는 도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
- 시민권, 민주주의 등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도시경영의 관점에서조차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운영을 전제로 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없이는, 제한된 도시 정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도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 도래
- 이에 거버넌스는 더는 낭만적인 주장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존립에 대한 화두로 이해되어야 함



[그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출발점으로서 ‘혁신 거버넌스와 시민주도 참여기획 도시’

3.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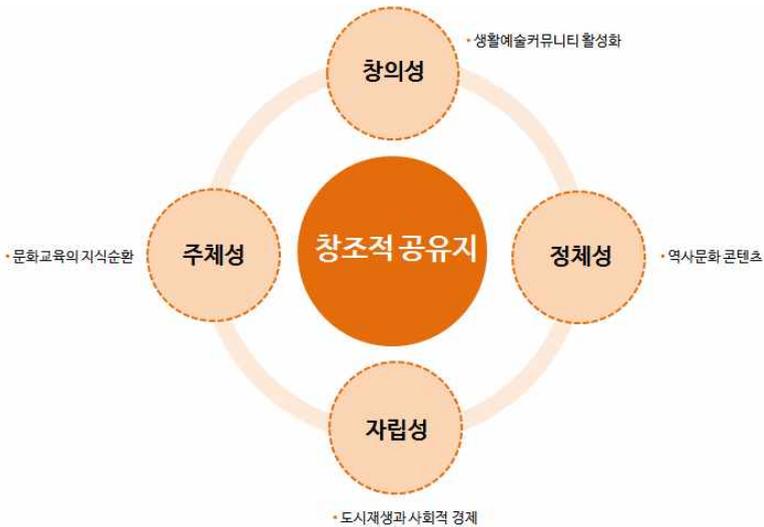
- 지역문화생태계 형성 :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지” 조성
 -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며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지원 환경 설계 및 조성
 -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 공공성 등이 확장될 수 있는 창의적 공유지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

- 창의적인 거버넌스 실험 : 지역문화 주체들 사이의 능동적인 거버넌스에 기반한 “커뮤니티 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확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민”,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성북문화공간운영위원회, 성북마을축제위원회, 성북문화콘텐츠공유협동조합, 성북문화예술창고 등)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

- 일상과 삶의 관계 확장 : 중장기적이고 생태계의 관점에서 “공진화” 협력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내부에서부터 상호 연계성에 기반한 공진화가 가능하게 환경 조성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마을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성북구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을 비롯하여 지역내 공공영역과 자율활동 사이의 연계성 및 관계 확장
 - 지역내 주요 주체(단체)들과 다음세대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고 공진화될 수 있는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림]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혁신거버넌스 :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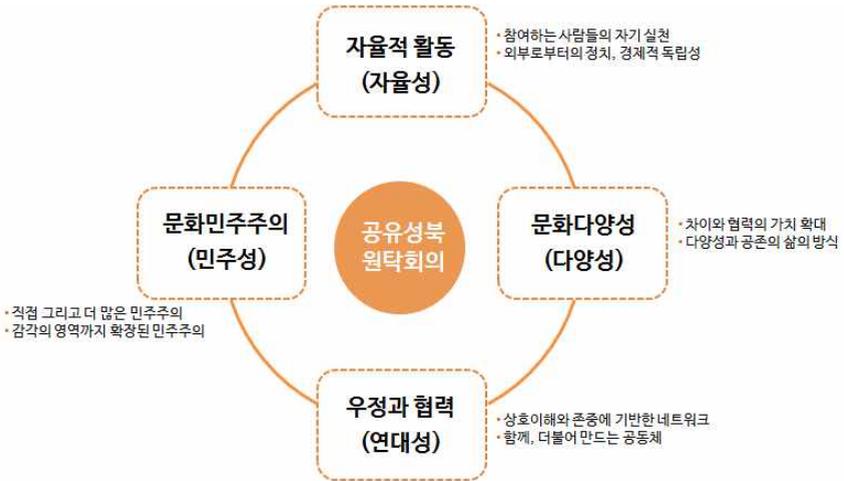
[그림]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혁신거버넌스 : 구성요소

4.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가.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정체성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모임, 단체)들 사이의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공존 및 협력을 위해 더불어 활동하는 커뮤니티”

나.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운영 원리



[그림]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운영 원리

○ 자율적 활동 (자율성)

- 공유성복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주체들은 자신의 동기와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활동
- 공유성복원탁회의는 외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확보
-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다.”

○ 문화민주주의 (민주성)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형식화된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제한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의 원칙과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잠재성에 주목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민주주의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의 감성을 소통하고 연대하는 영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관계 및 커뮤니티문화 형성을 지향

○ 우정과 협력 (연대성)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지향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호혜와 우정에 기반한 삶의 연대를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

○ 문화다양성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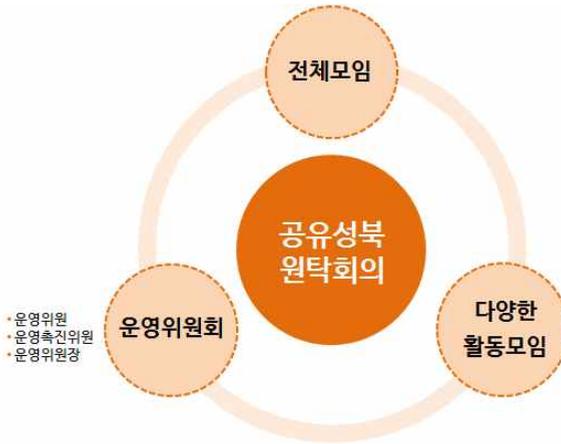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차이와 협력의 가치를 지역내에서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문화다양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정체성, 삶의 방식 등을 존중하고 교류하며 공존

5.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전체모임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대표성이 부여된 최종 의사결정 단위
 -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함께 결정한다.”
 - 성북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월 1회 모임
 - 2015년 9월 현재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명이 일상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성북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주민, 마을단체,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참여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위원회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소통하는 일상적인 운영 단위
 - 월 1회 모임
 - 현재 운영위원은 약 20명
 - 전체회의에서 스스로 운영위원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로 구성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촉진자들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
 - 공동운영위원장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대표성을 가지며, 운영 전반을 총괄. 1인은 신뢰(추천, 토론, 합의)에 기반하여 선발하며, 1인은 우연성(사다리타기)에 기반하여 선발
 - 운영촉진위원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며 업무를 추진할 시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운영위원 중에 약 5인으로 구성



○ 핵심 활동

- 성북지역문화생태계로서 공유성북원탁회의 내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활동들
- 공유성북원탁회의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6. 공유성북원탁회의 “최소한의 내규”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지속가능성, 합리적인 운영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내규 마련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최소한의 내규”를 원칙으로 한다. 내규에 없는 내용들은 상식과 토론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01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정체성 및 목적]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모임, 단체)들 사이의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공존 및 협력을 위해 더불어 활동하는 커뮤니티다.”

[02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구성]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취지 및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3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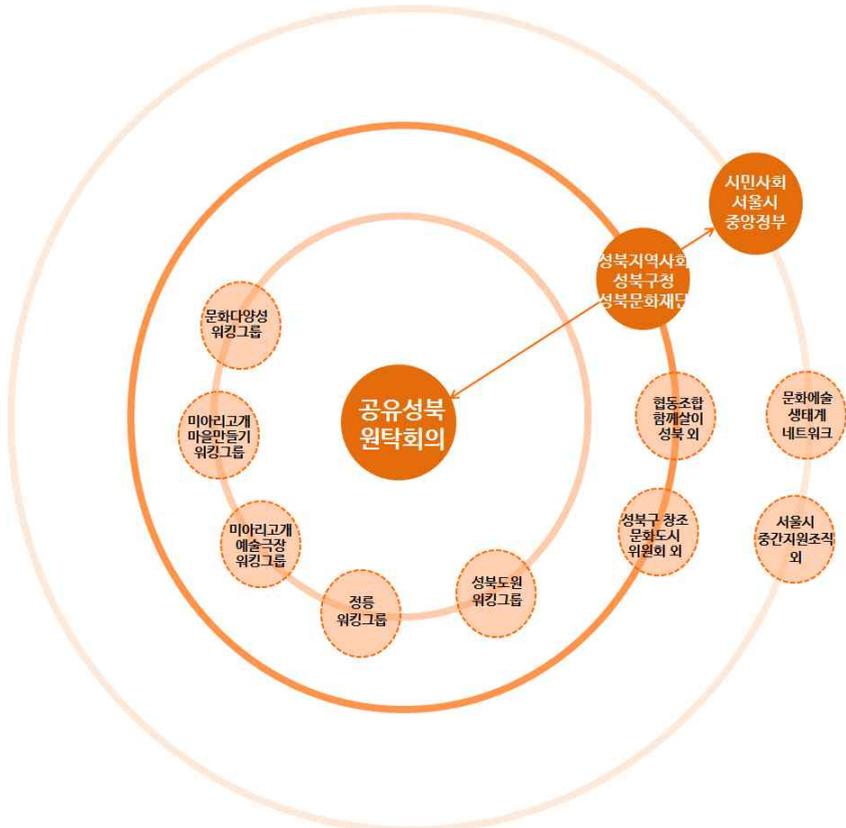
- ①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모임,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모임에서 한다.
 - 운영위원회는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일상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자로 운영위원장, 운영촉진위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운영위원장은 전체모임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04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동]

- ① 성북지역문화생태계로서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내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활동들
- ② 공유성북원탁회의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③ 기타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협의된 활동들

7. 공유성복원탁회의의 활동 현황

-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실질적인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활동 의제별로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 5개의 워킹그룹은 각각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모인 사람들이 해당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 및 운영 방식을 토론하고 결정하여 진행



[그림] 공유성복원탁회의의 활동 구조 및 관계망

○ 정릉 워킹그룹

- 성북구의 정릉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활동 진행
- 정릉 워킹그룹은 초기에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정릉마음시장>을 공유성북원탁회의 차원의 거버넌스 모델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음
- 정릉 워킹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정릉 지역을 거점으로 현재 <정릉마음시장>,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정릉적정기술놀이터> 등이 진행되고 있음



[사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정릉 워킹그룹 활동

○ 미아리고개마을만들기 워킹그룹

- 성북구의 미아리고개(성북구 삼선동) 지역을 거점으로 마을만들기 활동 진행
- 미아리고개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은 최근까지 외부 사업 없이 동네 연구, 산책, 워크숍 등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자원 찾기와 네트워킹을 진행
- 미아리고개의 하부 공간을 도시재생하는 <미인도> 프로젝트를 통해 하부공간의 문화공간화 사업 진행
- 미아리고개 지역 일대의 다양한 도시재생, 문화예술 사업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민 협력형 공간으로 거점화 하는 것을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성북구청 등과 함께 미아리고개 마을만들기를 둘러싼 중장기 연구를 커뮤니티 기반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



[사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미아리고개마을만들기 워킹그룹 활동

○ 문화다양성 워킹그룹

- 성북 지역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
- 정부와 행정 주도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 도시운영의 원리이자 철학 그리고 비전으로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장하는 활동 모색
- 성북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 성북구청의 <음식문화축제>, 성북구청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등과 연계하여 활동 중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문화다양성 워킹그룹을 통해 “대행사 중심”이었던 성북구청의 <음식문화축제>를, 지역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상인, 문화예술생태계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



[사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문화다양성 워킹그룹 활동

○ 성북도원 워킹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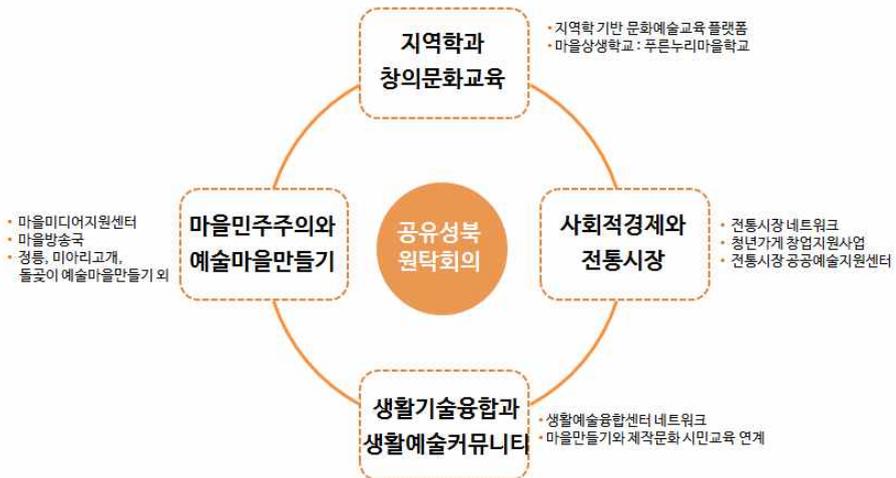
- 성북구 북정마을 위쪽 산 중턱에 위치한 시각예술 공간인 <성북도원>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
- <성북도원>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무허가 식당을 성북구청이 수용한 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 예산이 부족했던 <성북도원>을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자발적인 작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 워킹그룹 중심의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성북예술창작터를 비롯하여 성북동 일대의 다양한 시각예술작가들, 시각예술공간들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성북도원이 자리 매김 되고 있음



[사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성북도원 워킹그룹 활동

8. 공유성북원탁회의 향후 활동 계획 및 과제들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5개 워킹그룹 활동의 활성화,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확장 등에 따라 새로운 운영 구조 및 활동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무엇보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협동조합 등 좀 더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공유성북원탁회의가 기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경로에 따른 새로운 운영 시스템 및 활동 방식을 상상하고 구축해야 함



[사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전략적 활동 영역